

시민의 생활속 위험을 책임지는 광명 '생활안전전문대'

벌집제거·동물포획 등 생활안전출동 증가에 따른 광명 의소대 생활안전전문대 운영

기사입력시간 : 2024/07/08 [14:57:00]

이강순기자



▲ 시민의 생활속 위험을 책임지는 광명 '생활안전전문대'

[한국뉴스채널=이강순기자] 광명소방서는 지난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명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생활안전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의용소방대를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규 소방대의 긴급 출동 업무를 보조하면서, 의용소방대는 주로 벌집 제거와 동물 포획 등 비 긴급 생활안전 신고에 대응할 예정이다.

광명 생활안전전문대는 총 11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2인 1조로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낮시간 인 14시부터 4시간 동안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을 이용해 운영된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광명 의용소방대의 참여로 정규 소방대는 긴급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생활안전 사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광명소방서가 되겠다.”고 전했다.